

# 종이팩·금속캔·페트병 물로 헹구어 이물질 제거해야



### 재활용품 어떻게 분리배출 해야 할까?

책·노트 스프링과 택배상자 송장·테이프 꼭 제거를 라면봉지·인스턴트 커피 포장지 등 비닐류 봉투에 담아 배출 부탄가스·살충제 용기 노즐 꼭 눌러 내용물 제거 후 버려야

‘코로나19’ 여파 속에 재활용 쓰레기의 발생량이 폭증하고 있다. 하지만 재활용품 선별소에서 시민들의 무분별한 혼합배출과 잘못된 배출 방법 때문에 애를 먹고 있다. 이에 환경부가 제시한 재활용품의 올바른 분류방법과 배출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종이류=신문은 물기에 젖지 않은 상태에서 반듯하게 펴 차곡차곡 쌓은 후 흘날리지 않도록 끈 등으로 묶어 배출한다. 책과 노트는 스프링을 꼭 제거하고 다른 재질 역시 제거한 후 배출해야 한다. 대형마트와 택배상자에 붙은 송장과 테이프 역시 꼭 제거해야 한다. 종이류로 자주 착각하는 영수증, 혼합벽지, 부직포 등은 재활용품이 아니다. ◇종이팩·종이컵=우유 등을 담았던 종이팩은 내

용물을 비우고 물로 꼭 헹구어 이물질을 제거해야 한다. 우유를 마실 때 사용했던 빨대 역시 제거해야 한다. 종이컵 역시 물로 헹구어 이물질을 제거해 배출해야 한다. 종이팩과 종이류는 재활용 공정의 차이가 있어 구분해 버려야 한다. 종이류는 새 종이로, 종이팩은 화장지·마용티슈와 같은 제품으로 재탄생한다.

◇금속캔과 고철류=철캔과 알루미늄캔은 종이팩과 마찬가지로 물로 헹구어 이물질을 제거해야 한다. 담배꽂초 등 기타 이물질을 담아 버리는 것은 안되며, 캔을 덮는 플라스틱 등 다른 재질 뚜껑 역시 분리해 버려야 한다.

부탄가스와 살충제 용기는 개방된 장소에서 노즐을 꼭 눌러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해야 하며

제거 시 주의가 필요하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못, 못키 스패너 등 공구는 고철에 해당한다. 비철금속인 냄비, 후라이팬 종류는 비철금속에 해당하므로 구별이 필요하다.

◇유리병과 페트병=유리로 만들어진 음료수병과 용기 등은 이물질을 제거하고 유리병이 깨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거울, 전구, 깨진 유리, 도자기류, 내열식기류, 크리스털 유리제품은 유리로 착각할 수 있지만 유리로 분리배출하면 안된다.

제품에 ‘페트’라고 적힌 페트병도 물로 헹구어 이물질을 없애야 한다. 비닐상표와 부속품 등 다른 재질 역시 제거해야 한다.

◇플라스틱 용기류와 비닐류=HDPE, LDPE, PP, PS, PVC, OTHER 이라고 플라스틱 제품은

페트병과 마찬가지로 이물질 제거와 다른 재질 제거가 필요하다.

라면봉지나 인스턴트 커피 포장지와 같은 비닐류는 이물질 제거 후 흘날리지 않도록 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 HDPE, LDPE, PP, PS, PVC, OTHER 비닐류 모두 비닐류로 분리배출 해야 한다.

흔히 스티로폼이라고 불리는 발포합성수지는 이물질 제거는 필수, 부착상표 등 다른 재질을 제거하고 배출해야 한다. TV 등 전자제품 구입 시 완충재로 사용되는 스티로폼은 기급처 구입처에 반납하는 것을 권한다.

의류 및 원단은 지체체 또는 재활용사업자가 비치한 페이류 전용수거함에 버리면 된다. 전용수거함이 없다면 물기에 젖지 않게 마대 등에 담거나 묶어 배출하면 된다. 폐식용유는 음식물이 섞이지 않게 모아 폐식용유 전용함에 버려야 한다. 폐형광등은 깨지지 않도록 전용수거함에 배출하고 만약 깨졌다면 중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야 한다. 폐건전지는 주민센터, 편의점, 아파트에 설치된 전용수거함에 버려야 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폐기물부담금 감면제 연장 수입·제조 중기 내년까지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을 수입하거나 제조하는 중소기업들이 2021년까지 관련 폐기물 부담금을 감면받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4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폐기물 부담금이란 살충제 용기 등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 문제를 빚을 수 있는 제품을 제조·수입한 업체에 해당 폐기물 처리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정부는 2018년 출고량(2019년 5월 부담금 부과)까지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폐기물 부담금 감면 제도를 적용한 후 종료했으나, 이후에도 영세 중소기업에 중심으로 감면 제도를 연장해달라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이해 관계자와 간담회를 거쳐 중소기업 폐기물 부담금 감면 제도를 2021년 출고량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감면 대상은 연간 매출액 300억원 미만 업체에서 200억원 미만 업체로 축소하고, 감면율도 매출 규모에 따라 10~30%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조정된 감면율과 감면 규모는 2020년 출고·수입량(2021년 폐기물 부담금)부터 적용된다. 2019년 출고·수입량(2020년 폐기물 부담금)에는 현행대로 부과된다.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탓에 폐기물 부담금 납부에 부담을 느끼는 업체의 경우 정부는 부담금 징수를 최대 6개월간 유예하고 분납을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폐기물 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수입·출고 실적을 제출하지 않는 업체에 부과하는 과태료 관련 조항이 신설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포괄적인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위반 시 700만원, 3차 위반하면 1천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지역복지 발전 비전 연구보고서

### 전남복지재단 발간

전남복지재단은 최근 지역복지 발전 비전을 담은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한 연구보고서는 ▲섬 복지 전달체계 개선 방안 연구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통합 돌봄 체계 구축방안 연구 ▲경로당 공동생활의 집 사례로 본 커뮤니티케어 연계방안 ▲평가체계 구축을 위한 장애인복지관 평가지표 개선 연구 등 모두 4편이다.

섬 복지 전달체계 개선 연구는 대표적 복지 시각 지대인 전남 도서지역 복지 전달체계를 심층적으로 연구했다.

복지재단은 연구를 통해 보건·응급의료서비스 육구가 높지만 지리적 한계가 분명한 섬 지역에서 ‘이장·노인회장·부녀회장’과 ‘IT·IoT기술’을 활용해 수급자 발굴과 사례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또 최근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통합 돌봄과 관련, 역부족인 인프라 현황을 매칭 분석하고 시군 권역별·단계별 추진전략 수립을 촉구했다.

경로당 공동생활을 통해 커뮤니티 케어 도입 방안을 살펴본 연구의 경우, 정부 선도사업인 커뮤니티케어의 안정적인 도입 방안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

장애인복지관 평가지표 개선 방안 연구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평가가 지역적 특색이 반영되지 않은 점을 감안, 선방안을 모색했다. 재단은 이같은 연구 성과물을 22개 시·군과 유관기관·단체에 전달해 관련 정책개발을 유도할 예정이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치매안심 똑똑 보따리’ 배부 광주시 서구는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 독거노인과 노부부 가정 248세대에 ‘치매안심 똑똑(Knock Knock) 보따리’를 지난 6일 배부했다. 보따리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 운영 중단 등에 따른 치매 어르신들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제작된 보따리는 어르신들의 건강을 챙기기 위한 영양제, 두유, 즉석죽, 조미김 등 식료품을 비롯해 퍼즐·색칠노트·색연필 세트 등 치매어르신들이 가정에서도 인지재활 프로그램을 이어나갈 수 있는 학습도구로 구성됐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전화로 98만여 어르신 코로나19 의심증상 확인한다

### 복지부,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보건복지부는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받는 65세 이상 어르신 98만여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의심 증상 여부를 전화로 확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간호사 등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전담 요원은 4월부터 소강 시점까지 어르신에게 정기적

으로 전화해 코로나19 증상의 발현 여부를 확인하고,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즉각적으로 선별진료소 방문 등을 안내토록 하였다.

평소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서비스는 만성질환의 예방 및 능동적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방문건강관리 전담요원이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정예 방문, 혈압·혈당 등 건강위험요인 파

악 및 건강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코로나19 대응이 계속되면서 평소 받던 건강관리서비스의 중단도 길어짐에 따라 어르신들의 만성질환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인 점을 감안, 보건복지부는 각 보건소에 코로나19의 위험군이라 할 수 있는 65세 이상 홀로 사는 어르신과 75세 이상 노인부부 가구 등을 중심으로 전화 연락을 통한 건강관리서비스를 다시 시작하고 코로나19 대응 지침을 배포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고령자친화기업 공모

### 복지부, 어르신 일자리 창출 촉진

보건복지부는 민간 영역에서 어르신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2020년도 고령자친화기업’ 공모 계획을 발표했다.

고령자친화기업 제도는 직원 다수가 만 60세 이상 어르신으로 구성된 기업을 설립하면 최대 3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2011년에 시작해 2019년까지 208개소가 설립됐다.

고령자친화기업 공모를 통해 선정된 기업은 향후 5년(2021~2025년) 간 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신청 유형에 따라 1~3억 원의 사업비와 기업 경영 서비스 및 상담(컨설팅) 등이 지원된다. 선정된 기업은 유형에 따라 정부 지원금의 일정 비율에 맞춰 투자(대우투자)해야 하며, 기업에서 스스로 제시한 고령 근로자 고용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산업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호남기업 집진기

## 창사 32년 (주)YHB ECO

www.yhbeco.co.kr

### 미스트크리너

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원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



### 더스트크리너

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



### 전기집진기

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자본 판매하실 분

광주공장 영업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10번로 115-33(안창동)

TEL : 062 - 953 - 2995  
H·P : 010-2051-6401

서울영업본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동테크노타운12가 501호 TEL : 02 - 2029 - 6400 ~ 3